

KIA 톱타자 이용규가 살아난다



팀 연패 늪에 보폭 줄이고 방망이 짧게 변화 시도 이달 7경기서 타율 5할대 만점활약... '4강 이끌것'



1번 타자가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의 '날쌘돌이' 이용규는 올 시즌을 앞두고 두 가지 변화를 감행했다. 타격시 보폭을 줄이고 스트라이드시 오른발을 홈플레이트 쪽으로 하며 꺾기를 짧게 가져갔다. 배트도 조금 길어내려 몸쪽으로 붙이는 등 타격폼을 대폭 수정했다. 배트 무게는 33인치에서 33.5인치로 늘렸다.

모두 '장타력'에 초점을 맞춘 수정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시즌이 시작된 4월 이용규의 타율은 0.186에 불과했다. 4월 한 달 기록한 안타는 13개. 반면 삼진은 12개에 달했고 병살타도 3개를 때려냈다. 0.278의 출루율로 하나의 도루를 성공하는데 그치며 테이볼 세터로서의 역할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용규의 부진 속에 KIA도 좀처럼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다.

부진이 거듭되면서 이용규는 시즌 중간 다시 변화를 줬다. 배트도 더 짧게 잡고 폼도 간결하게 가면서 5월 한 달 3할이 넘는 타율

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내 이용규는 다시 부진 사이클에 빠졌다.

부진과 활약의 경계를 오가는 이용규의 '변화'에는 장타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팀이 16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써내려가는 등 힘든 일정을 이어가자 이용규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벗어던졌다. 얼마전 방망이도 교체했다. 지난해까지 사용했던 33인치의 방망이를 들고 전면에서 나섰다.

이용규는 지난해 한화와의 주말 2경기에서 7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팀의 연패 탈출에

앞장섰다. 11일 경기까지 7월 7경기에서 33타수 17안타를 기록하며 월간타율이 0.515로 고공행진중이다. 0.515의 출루율과 함께 3개의 도루를 성공시킨 이용규는 1번 타자로 만점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용규는 "시즌 초반에는 장타를 때려낸다는 욕심에 타격폼을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타격폼을 너무 극단적으로 바꾸는 등 준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돌아온 1번 이용규는 3할 타율과 30도루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다.

이용규는 "1번 타자로 무조건 출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타율과 도루를 목표로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팀의 4강행을 선두에서 이끌지 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KIA- LG 12차전 비로 취소

13일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와의 시즌 12차전 위천으로 취소됐다. 취소된 경기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백용환 홈런레이스 참가

프로야구 2군들의 잔치 '퓨처스 올스타전' 17일 제주도

17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0 프로야구 퓨처스 올스타전 참가 선수명단과 행사 계획이 확정됐다.

롯데 박정태 감독이 이끄는 남부리그에서는 KIA 정용운·백용환·홍재호·이인형을 비롯해 삼성 정형식, 넥센 김정훈, 한화 김강, 롯데 하준호 등 20명이 선정됐다.

북부리그는 상무 김정택 감독이 사령탑을 맡게 되며 상무 최진호, 경찰청 현승민, LG 문선재, SK 박희수, 두산 유희관 등이 올스타에 이름을 올렸다.

KIA 백용환과 함께 김주현(롯데), 최주환(상무), 이두환(두산), 김종찬(경찰)은 올스타전의 백미 '홈런레이스'에서 파워 대결을 벌인다.

올스타전 최초로 승리팀에게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선수(MVP)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우수투

수 및 우수타자, 홈런레이스 우승 선수에게도 각각 트로피와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올스타전에 참가한 선수단 전원에게는 2010 퓨처스 올스타전 기념메달이 증정된다.

식전행사도 펼쳐진다. '천하무적 야구단'의 연예인 선수단과 2군 감독 10명과 6명의 코치로 구성된 퓨처스 코칭스태프의 경기가 3이닝 동안 진행된다.

프로야구 전설들의 팬사인회도 열린다. 이만수(SK), 김기태(LG), 박정태(롯데) 감독과 전준호(SK) 코치가 사인회를 갖고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통산 550도루를 달성하고 은퇴한 전준호 코치의 기념상 수여 시간도 마련된다.

퓨처스 올스타전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입장요금은 무료다. 우선시 18일로 순연 개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요정의 줄연기

13일 오후 경기 김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김포시장배 국제리듬체조대회에서 신수지(세종대)가 아름다운 줄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월드컵 베스트 11 후보에

한국 축구 대표팀 '캡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사진)이 유로스포츠가 선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베스트 11의 후보 선수로 선정됐다.



유로스포츠는 13일(한국시간) 전문가와 팬들의 인터넷에 올린 평점을 종합해 이번 월드컵에서 포지션 별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 11명을 추려 발표했다.

3개 대회 연속 골을 넣으면서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끈 박지성은 아쉽게 베스트 11에는 들지 못했지만 후보 선수 13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유로스포츠는 박지성을 "한국 미드필드의 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리스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골을 넣어 한국의 16강 진출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베스트 11에는 대회 MVP인 골든볼을 수상한 디에고 포를란(우루과이)을 필두로 팀의 첫 우승을 이끈 다비드 비아(스페인)와 베슬라이 스네이더르(네덜란드),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독일) 등이 뽑혔다.

일본은 공격수 혼다 게이스케와 중앙 수비수 나카자와 유지 등 두 명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번 대회 득점상을 차지한 토마스 뮐러(독일)와 결승전 결승골의 주인공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스페인) 등은 박지성과 함께 후보 선수로 뽑히는 데 그쳤다.

유력한 골든볼 후보로 기대를 모았으나 8강에서 독일에 참패하면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짐을 싣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도 후보 선수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축구, 한국과 리턴매치 추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국과 2-2로 비겼던 나이지리아가 월드컵 무대를 떠나 A매치를 통해 '끝장 승부'를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이지리아 일간지 뱅가드는 13일(한국시간) "나이지리아축구협회의 새로운 이사회가 한국과 친선전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나섰던 11명의 선수가 친선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도미니크 이오르파 나이지리아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뱅가드와 인터뷰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한국과 재대결에 새로운 선수를 모으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번 A매치 추진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예선에 대비하는 차원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팀을 재건하고 있다. 대표팀이 0-10으로 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겠다"며 "기술위원회는 이번 월드컵에 나섰던 선수 가운데 11~13명이 한국과 평가전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새로운 선수를 찾을 시간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요정' 신수지 부활... 아시안게임 금 기대

왼쪽 발목 통증을 털어낸 신수지(19, 세종고)가 제23회 회장배 리듬체조대회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신수지는 13일 경기도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대회 첫날 대학부 개인종합에서 줄(24.375점)-후프(24.600점)-볼(25.550점)-리본(25.100점) 4종목 합계 99.625점을 얻어 이경화(97.125점), 김윤희(95.750점) 이상 세종대를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3월 연습 중 왼쪽 발목을 다쳐 김스까지 했던 신수지는 석달 가까이 재활에 전념했고 최근 3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탐금질을 끝낸 뒤 지난 11일 귀국했다. 전지훈련에서 음악과 연기 동작을 모두 새로 배운 신수지는 이날 모든 종목에서 24~25점대를 받는 고된 기량을 뽐내며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연합뉴스

오티스, 메이저리그 올스타 홈런왕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빅 파파' 데이비드 오티스(35·사진)가 메이저리그 올스타 홈런왕에 올랐다.

오티스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2010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전야행사로 펼쳐진 홈런 대비 결승 라운드에서 11개의 아치를 외야 스탠드에 꽂아 5개에 그친 헨리 라미레스(플로리다)를 제치고 최고의 거포로 우뚝 섰다.

1라운드에서 8개의 홈런을 쳐 3등으로 2라운드에 오른 오티스는 2라운드에서 홈런 13개를 뽐내며 홈런왕을 예감하더니 결승라운드에서도 역대 최다 타이거를 세우는 괴력을 보였다.

홈런 대비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8명



의 홈런 타자가 참가해 1라운드에서 4명을 추려 2라운드를 벌인 다음 합산 홈런 개수가 가장 많은 2명이 결승에 오르는 방식이다.

헛스윙, 파울에 그치거나 펜스를 넘기지 못하면 아웃으로 간주하며, 10 아웃이 될 때까지 도전할 수 있다.

힘과 정교함을 동시에 갖춘데다 거침없는 입담까지 자랑해 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올스타전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던 오티스는 4번째 홈런 대비에 나선 끝에 홈런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프라이스-히메네스 올스타전 선발 격돌

좌완 영건 에이스 데이비드 프라이스(탬파베이)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양대리그를 통틀어 다승 부문 선두를 달리는 우완 우발도 히메네스(콜로라도)가 '별들의 잔치'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프라이스와 히메네스는 14일(한국시간) 오전 9시 미국 애너하임의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제8회 올스타전의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선발투수로 각각 낙점을 받았다.

프라이스는 아메리칸리그 다승 공동선두(12승)인 베테랑 CC 사바시아(뉴욕 양키스)를 제치고 중책을 맡았다. 지난 2007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탬파베이 지명을 받았던 프라이스는 17차례 선발 등판해 12승(4패)을 수확하며 평균자책점 2.42의 잔물 투구를 보여줬다. 다승과 방어율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며 탈삼진 100개를 기록 중이다.

이에 맞서는 히메네스는 15승(1패)과 평균 자책점 2.20의 환상적인 투구로 2006년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5일 이미 은퇴한 홈런왕 배리 본즈에게 역사적인 762호 홈런을 헌납했던 히메네스는 지난해 올렸던 승수(15승)를 이미 달성했다. 특히 내셔널리그가 지난 1997년부터 13년 연속 올스타전 무승 행진(2002년 무승부 포함) 중이다. /연합뉴스